Daishin 증권

2026년 01월 14일 수요일

Morning Meeting Brief

Strategy

[퀀틴전시 플랜] 불확실성을 압도하는 펀더멘털, 코스피 4,700 이 눈앞에

- 로보틱스 기업으로 재평가 받는 현대차 그룹, 산업 이벤트 소화하며 순환매
- 강세장의 특징, 불확실성에 아랑곳하지 않는 시장
- 순환매 장세 뚜렷, 주목받지 못했던 업종으로 수급 확산

정해창. haechang.chung@daishin.com

REITs

K-REITs Guide Book 1Q26, 국내 리츠 대표 종목

- 2025년 국내 리츠 시장 Review: 금리 하락 속 점진적 회복 국면에 진입. 국내 자산 리츠 중심의 회복세 및 차입금리의 하향 안정화
- 매출증가-비용감소에 따른 실적 개선 본격화로 DPS 상회하는 배당 여력 확보 기대. 실물 거래 시장 회복에 따른 NAV 개선도 긍정적
- 주요 이슈: 배당소득 분리과세, 신규 자산 편입(SK, ESR, 롯데, NH프라임, KB스타), 자산 매각(디앤디, 신한서부티엔디, 이지스레지던스) 등)

이혜진. Hyejin1.lee@daishin.com

산업 및 종목 분석

[CES 2026 참관후기] Compute Everywhere, Scaling AI

- AI 인프라 투자의 성장 축이 LLM 중심에서 Physical AI로 확장
- Physical AI 확산으로 연산과 대규모 시뮬레이션 수요가 증가
-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주요 고객과의 협상 공급 안정성 확보에 집중

류형근. Hyungkeun.ryu@daishin.com

[4Q25 Preview] 스튜디오드래곤: 다시 좋아질지어니

- 4Q25 매출 1.7천억원(+31% yoy), OP 185억원(+246% yoy) 전망
- 작품 수 회복. 4Q 66회차(+20회 yoy), 25년 238회차(+20회 yoy)
- 성과도 입증. 연초 시청률 부진했으나, 하반기 회복. 26년 좋은 출발

김회재. hoijae.kim@daishin.com

[4Q25 Preview] NAVER: 4Q 까진 본업 양호, 2026 년엔 점진적 둔화 전망

- 4Q 컨셉 부합 전망. 통합 광고 성장률 소폭 둔화 전망. 쇼핑은 수수료 인상 효과 지속
- 12월 쇼핑 반등 전망. 쿠팡 반사수혜·할인 효과 혼재, 구조적 성장은 지속 확인 필요
- 본업 매출 성장 점진적 둔화 전망. 전사 매출 성장 위해 파이낸셜 신사업 가시화 필요

이지은. Jeeeun.lee@daishin.com

Strategy

Strategist Jr. 정해창
haechang.chung@daishin.com

Strategist 이경민
kyoungmin.lee@daishin.com

불확실성을 압도하는 펀더멘털, 코스피 4,700이 눈앞에

- 로보틱스 기업으로 재평가 받는 현대차 그룹, 산업 이벤트 소화하며 순환매
- 강세장의 특징, 불확실성에 아랑곳하지 않는 시장
- 순환매 장세 뚜렷, 주목받지 못했던 업종으로 수급 확산

로보틱스 기업으로 재평가 받는 현대차 그룹, 산업 이벤트 소화하며 순환매

– 지난주 반도체에 이어 자동차 업종으로 순환매 전개, KOSPI 상승 탄력 강화

– **자동차**: CES2026을 계기로 밸류에이션 Re-rating, 현대차 그룹을 중심으로 저평가 구간을 벗어나는 흐름. '보스턴 다이나믹스'사 상장 추진 시 지분가치 부각 현대차(+10.6%), HL만도(+7.5%), 현대모비스(+14.5%), 현대글로비스(+5.5%)

– **반도체**: 단기 과열 해소, 차익실현 매물을 소화하며 숨고르기. SK하이닉스의 19조원 규모 신규 패키징 팹 투자 결정으로 반도체 공급부족 내러티브 약화

– **제약/바이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소화, 기대감 선반영 이후 혼조세 디앤디파마텍(-7.8%) / 삼성바이오로직스(+2.6%), 셀트리온(+3.3%)

강세장의 특징, 불확실성에 아랑곳하지 않는 시장

– 전일 파월의장에 대한 형사고발로 연준 독립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 그러나 미국 증시는 상승 전환. 견고한 경제와 실적 기대감이 연준 불확실성을 압도. 시장은 지난해부터 반복된 압박에 내성 형성. 파월 의장의 잔여 임기 및 정치적 득실을 고려할 때, 행정부의 압박은 실질적인 사법 처리 보다는 상징적 조치에 그칠 전망

– 파월 임기 종료 이후 차기 의장에 대해 사전에 기강을 잡기 위한 보여주기식 위협이라는 것이 중론, 트럼프도 본인이 지시한 것이 아니라며 한 발 빼는 모습

– 지난해 트럼프의 파월 해임 위협 당시 글로벌 자금은 탈-US 흐름 전개, 이례적으로 미국채, 달러, 미 증시 등 달러화 자산의 하락이 동시에 시현, Non-US 증시에는 심리적 충격 이상의 악재요인은 아닐 것. 또한, 오늘 밤 미국 CPI 물가 발표 예정임에도 경계/불안심리를 찾아보기 어려웠음. 투자심리 견고

순환매 장세 뚜렷, 주목받지 못했던 업종으로 수급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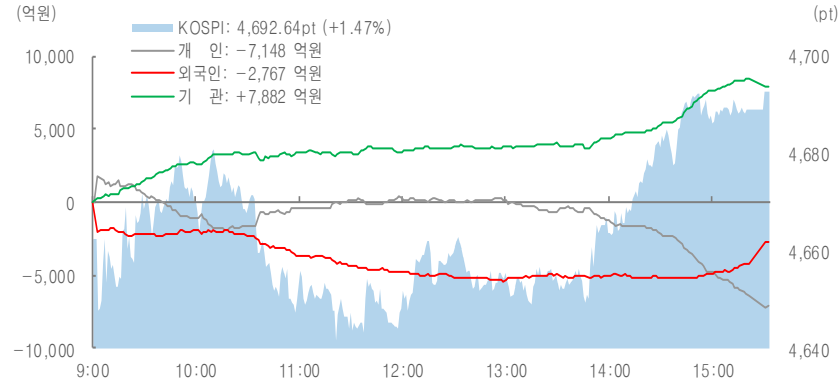
– 반도체 쏠림이 완화 이후 순환매 뚜렷. 대표적으로 외국인 수급은 전기전자 대형주에서만 -1.2조원대 매도했으나 코스피 전체에서는 -2,700억원대 매도에 그쳤음. 반도체 제외 시 업종 전반 순매수

조선/방산: HD현대중공업(+6.8%), 한화시스템(+14.2%), 현대로템(+6.4%)

철강/2차전지 소재: POSCO홀딩스(+13.9%), LG화학(+6.5%)

소프트웨어: 엔씨소프트(+10.3%), NAVER(+3.5%), 삼성에스디에스(+4.3%)

KOSPI 투자주체별 수급 및 장중흐름



자료: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REITs

K-REITs Guide Book, 1Q26
국내 리츠 대표 종목

REITs Analyst 이혜진
Hyejin1.lee@daishin.com

- 금리 하락 속 점진적 회복 국면에 진입. 국내 자산 중심 회복세 및 차입 금리 하향 안정화
- 실적 개선 본격화로 DPS 상회하는 배당 여력 확보 기대. NAV 개선도 긍정적
- 주요 이슈: 배당소득 분리과세, 신규 자산 편입, 보유 자산 매각 등

K-REITs Market

2025년 국내 리츠는 국내 증시의 강한 상승 흐름 대비 상대적으로 언더퍼폼했으나, KRX 리츠 TOP10 지수 기준 연간 +8.9% 상승하며 마무리. 해외 자산 보유 리츠는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지속한 반면, 국내 자산 중심 리츠의 상승률은 +17.3%로 전체 지수를 크게 상회

금리 인하 효과가 가시화 된 해. 기준금리 및 시장금리 하락에 따른 리츠 차입 금리의 하향 안정화. 대형 스폰서 리츠를 중심으로 저금리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 경쟁력 확보

자산 신규 편입 시 적극적인 레버리지 활용. 24년 하반기 주가 급락의 원인이었던 유상증자 충격 최소화하며 외형 확장 추진. 자산 재평가를 통해 확보한 LTV 여유분도 적극 활용

매출 증가-비용 감소에 따라 실적 개선 본격화. DPS를 상회하는 배당 여력 확보 기대. 실물 자산 거래 회복에 따른 NAV 개선 역시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 특별 배당 가능성이 있는 리츠에 대한 관심 확대 전망

국내 리츠 대표 종목

SK리츠: 신규 자산 편입으로 5조 원대 AUM 달성 (12개월 fwd 배당수익률 4.5%)

- 시가총액 및 자산 규모 모두 국내 리츠 최대 수준. 그룹 계열사와의 장기/책임 임대차 계약을 통한 안정적인 임대수익 창출. 현재 보유 자산 공실률은 0%, SK그룹 임대면적 비중은 98%. SKT와 SK플래닛이 사옥으로 사용 중인 SK 판교 오피스 편입 완료. 매입가는 3,607억 원(2,400만 원/평, Cap 4.87%)

롯데리츠: 2026년 첫 편입 자산은 L7 홍대 (12개월 fwd 배당수익률 6.7%)

- 1월 중 L7호텔 홍대 편입 예정. 호텔롯데가 전체 마스터리스 할 예정이며, 고정+매출 연동 임대료로 향후 관광수요 상승에 따른 임대수익 상승 기대 가능. 자산 매입가는 2,650억 원. DPS는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으며, 26년 예상 연간 DPS는 271원, 27년은 292원으로 연평균 10%의 배당 성장 기대

ESR켄달스퀘어리츠: 물류 양극화의 시대, 자산으로 증명하는 경쟁력(배당수익률 6.2%)

- 25년 진행한 자산 매입/매각은 총 4건으로, 1) 1,341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통한 천안 물류센터1 매입, 2) 스폰서로부터 이천 물류센터9 매입, 3) 이천 물류센터10 매입, 4) 이천 물류센터4 매각. 보유 자산 평균 임대율은 97.0%. 국내 물류 시장은 스펙/용도/입지에 따른 임차 수요 양극화 현상 지속

한화리츠: 자산가치는 UP, 이자비용은 DOWN (12개월 fwd 배당수익률 6.3%)

- 보유 자산 평균 임대료는 전년 동기 대비 +4% 증가. 평균 공실률은 1.23% (프라임 오피스 0.13%)이며, 한화 계열사 임차 비중 78%로 안정적인 임대차 구조 유지. 회사채 발행 및 조기 리파로 차입금리 상장 당시 대비 큰 폭 하락

신한알파리츠: 신규 자산 편입과 임대차 개선으로 배당 레벨업 (12개월 fwd 배당수익률 6.5%)

- 리츠 보유 자산 평균 임대율 98.3%, WALE 3.2년. 25년 상반기 신규 및 재계약 체결 결과, 평균 E.NOC는 +30.7% 상승. 임대수익 상승에 따라 배당 가이던스 상향 조정. 26년 예상 연간 DPS 기존 347원에서 366원으로 상향

삼성FN리츠: 신규 자산 편입 시 AUM 1조원 돌파 기대 (12개월 fwd 배당수익률 5.7%)

- 25년 임대차 개선으로 평균 E.NOC +8.67% 상승. 실적 개선에 따라 목표 배당 수익률을 기존 5.35%에서 5.50%로 상향 조정 제시. 삼성생명의 잠실빌딩 신규 편입 검토. 예상 가격은 2천 억 원대로, 편입 완료 시 AUM 1조 원 상회 예정

CES
2026

류형근 hyungkeun.ryu@daishin.com
서지원RA jiwon0.seo@daishi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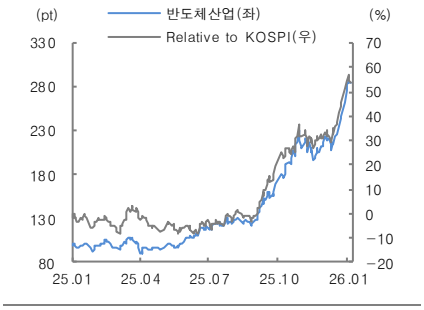
투자의견

Overweight

비중확대, 상향

Rating & Target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28.9	57.0	133.7	185.8
상대수익률	16.2	22.6	60.5	55.5



CES 2026 참관후기

- AI 인프라 투자의 성장 축이 LLM 중심에서 Physical AI로 확장
- Physical AI 확산으로 연산과 대규모 시뮬레이션 수요가 증가
-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주요 고객과의 협상 공급 안정성 확보에 집중

Physical AI, AI 인프라 투자 확장의 기점

NVIDIA와 AMD의 키노트를 시작으로 CES 2026이 개막했으며, NVIDIA 행사에는 수천 명의 인파가 몰릴 정도로 AI에 대한 시장의 높은 관심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CES에서 확인된 핵심 변화는 AI 인프라 투자의 성장 엔진이 기존 LLM 중심의 학습·1차 추론 수요에서 Agent AI와 Physical AI로 다각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ChatGPT·Gemini 확산 이후 AI 컴퓨팅 수요는 디지털 영역을 넘어 물리 세계로 확장되는 2차 성장 국면에 진입했으며, Physical AI는 현실 세계에서 인지-추론-행동을 수행하는 구조로 진화하고 있다. 높은 실패 비용과 불확실성으로 인해 초저지연 연산과 대규모 시뮬레이션이 필수화되면서, AI 인프라 투자는 **제2 확장 사이클(Phase 2)**에 진입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초대형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와 반도체 산업으로의 사이클 선순환 기대를 높이는 요인이다

Computing 비용 하락, Physical AI 투자 경쟁 가속

Physical AI의 사업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Computing 비용 절감이 핵심 과제로 부각된다. 이번 CES에서 NVIDIA와 AMD가 공개한 신제품은 이러한 비용 구조 혁신의 출발점으로 평가된다. NVIDIA는 차세대 플랫폼 Vera Rubin이 이미 양산 단계에 진입했음을 발표하며, Blackwell 대비 AI 학습 성능은 3.5배, AI 소프트웨어 실행 성능은 5배 향상되고 토큰당 처리 비용은 1/10 수준으로 낮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규 플랫폼의 실질적인 효과는 3Q26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AMD는 신규 데이터센터 랙 시스템 Helios를 공개하며, 72개의 MI455x GPU와 18개의 Venice CPU를 하나의 유닛으로 동작시키는 랙 스케일 설계를 제시했다. 메타와 협업한 더블 와이드 규격, 800Gb 이더넷 스위치, 수랭식 냉각 시스템을 통해 초대규모 AI 연산 환경에 대응하겠다는 전략을 명확히 했다.

.한국 반도체, 실질 협상에 집중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Public Booth 운영을 축소하고, 공개 전시보다 주요 고객과의 협상에 집중하는 전략을 택했다. SK하이닉스는 Private Booth를 통해 AI용 메모리 로드맵을 제시했으며, 삼성전자는 반도체 부문 전시 대신 장기공급계약 및 공급망 안정화 논의에 주력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AI 사이클 본격화 국면에서 수주와 공급 안정성 확보를 우선한 전략적 선택으로 해석된다.

Earnings Preview

스튜디오 드래곤 (253450)

다시 좋아질지어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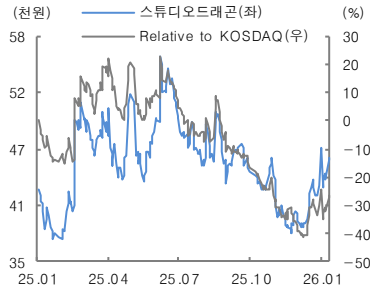
김회재

hoijae.kim@daishin.com

투자의견	BUY 매수, 유지
6개월 목표주가	64,000 유지
현재주가 (26.01.13)	45,600 미디어업종

KOSDAQ	948.98
시가총액	1,371십억원
시가총액비중	0.29%
자본금(보통주)	15십억원
52주 최고/최저	56,000원 / 37,35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48억원
외국인지분율	9.19%
주요주주	CJ ENM 외 3 인 54.79% 네이버 6.25%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17.1	4.7	-4.1	18.8
상대수익률	15.6	-5.1	-19.1	-11.4



- 4Q25 매출 1.7천억원(+31% yoy), OP 185억원(+246% yoy) 전망
- 작품 수 회복. 4Q 66회차(+20회 yoy), 25년 238회차(+20회 yoy)
- 성과도 입증. 연초 시청률 부진했으나, 하반기 회복. 26년 좋은 출발

투자의견 매수(Buy), 목표주가 64,000원 유지

목표주가 64천원은 잔여이익평가모형(RIM)을 이용하여 산출
12M FWD EPS 1,495원에 PER 43배 적용 수준. 최근 5년 PER 평균 하단 47배

4Q25 Preview: 작품 수 회복, 성과도 입증

매출 1.7천억원(+31% yoy, +25% qoq), OP 185억원(+246% yoy, +77% qoq) 전망

4Q 방영회차는 66회차(TV 46회, OTT 20회). +20회 yoy, -6회 qoq
4Q 라인업: 〈신사장 프로젝트〉 6회, 〈얄미운 사랑〉 16회, 〈태풍상사〉 16회, 〈프로보노〉 8회, 〈친애하는X〉 12회, 〈소울 메이트(일본)〉 8회

글로벌 OTT 선판매. NFLX 〈태풍상사〉 10.2%, 〈프로보노〉 10%, 아마존 〈얄미운 사랑〉 5.5%. 〈얄미운 사랑〉은 월화임에도 대작이고, 글로벌 선판매, 시청률도 양호

1) 작품 수 회복. 25년 작품은 당사 기준 21편(+2편 yoy), 회차수는 238회차(+20회차 yoy)로 회복(집계 방식의 차이로 회사 기준은 24년 18편, 25년 19편)
26년 작품 수는 최소 25편. 수목, 지상파, 미국 현지 제작 등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약 30편에 가까운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

2) 성과도 입증. 드래곤 작품의 14년 이후 장기 평균 시청률은 6.3%. 1Q25는 3%로 낮게 시작했지만, 2Q 5.9%, 3Q 8.9%, 4Q 7.5%로 25년 평균 6.3%로 마감

3Q 〈폭군의 세프〉는 최고 17.1%로 역대 6위를 기록했으나, 12회차 기준으로는 역대 2위에 등극. 4Q~1Q26 〈프로보노〉는 10%로 종영, 26년 좋은 출발

26년 편안한 외형 성장. 마진 개선도 기대

26년 작품 편수는 최소 25편(+4편 yoy). 〈100일의 거짓말〉, tving 〈유미의 세포들 3〉, 디즈니+ 〈골드랜드〉, NFLX 〈참교육〉, 〈천천히 강렬하게〉 등 TV와 OTT에 걸쳐서 다양한 대작들이 편성될 예정. 플랫폼도 다변화. 지상파향 4편, NFLX 오리지널 4편, 디즈니+ 오리지널 1편, 티빙 오리지널 4편 등

비용 효율화에 따른 마진 개선. OPM 3Q 7.7%(+8.7%p yoy), 4Q 10.8%(+6.7%p yoy) 전망. 25E 5.4%(-1.2%p), 26E 8.7%(+3.3%p), 27E 11.4%(+2.7%p)

동사가 18년에 판매한 〈나의 아저씨〉 판권을 기반으로 중국판 리메이크작 공개 한한령 해제의 시그널. 당사 추정 구작 70여편 약 350억원, 동시방영 2편 약 420억원 반영시 26년 OP는 1.3천억원 가능, PER은 13배 수준에 불과

P(단위: 십억원, %)

구분	4Q24	3Q25	4Q25(F)					1Q26		
			직전추정	당사추정	YoY	QoQ	Consensus	당사추정	YoY	QoQ
매출액	131	137	171	171	31.0	25.3	161	122	-9.0	-28.9
영업이익	5	10	19	19	245.7	76.7	17	9	110.6	-51.4
순이익	11	9	13	13	16.2	47.1	11	8	245.8	-37.5

자료: 스튜디오드래곤,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Earnings Preview

NAVER (035420)

4Q까진 본업 양호, 2026년엔 점진적 둔화 전망

- 4Q 컨셉 부합 전망. 통합 광고 성장률 소폭 둔화 전망. 쇼핑은 수수료 인상 효과 지속
- 12월 쇼핑 반등 전망. 쿠팡 반사수혜·할인 효과 혼재, 구조적 성장은 지속 확인 필요
- 본업 매출 성장 점진적 둔화 전망. 전사 매출 성장 위해 파이낸셜 신사업 가시화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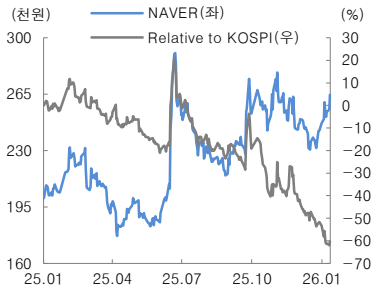
이지은

jeeeun.lee@daishin.com

투자의견	BUY 매수, 유지
6개월 목표주가	330,000 유지
현재주가 (26.01.13)	264,500
	인터넷업종

KOSPI	4692.64
시가총액	41,488십억원
시가총액비중	1.25%
자본금(보통주)	16십억원
52주 최고/최저	290,500원 / 176,90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3,163억원
외국인지분율	39.68%
주요주주	국민연금공단 9.33% BlackRock Fund Advisors 외 13 인 6.12%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8.2	0.8	4.5	29.7
상대수익률	-3.9	-23.0	-29.2	-31.2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330,000원 유지

목표주가는 SOTP 방식으로 산출. 부문별 적정가치는 1) 서치 플랫폼 21.8조원, 2) 커머스 17.9조원, 3) 파이낸셜 3.4조원, 4) 웹툰 1.0조원, 5) 엔터프라이즈 2.4조원, 6) LY 지분가치 5.3조원 등

참고) SOTP로 방식으로 추정한 총 기업가치는 2026 EPS 기준 22배 수준

4Q까지 본업 양호. 쿠팡 반사 수혜의 지속성에 대해서는 지속 확인 필요

4Q25 매출액 3조 2,867억원(YoY 13.9%, QoQ 4.7%), 영업이익 6,078억원(YoY 12.1%, QoQ 6.5%) 예상. 매출, 영업이익 모두 컨센 부합 전망

서치플랫폼. 매출 1조 898억원(YoY 2.4%, QoQ 2.8%) 예상. 통합 광고 매출 성장률은 9.7%로 추정하며, 전분기대비 소폭 감소 전망. 이는 통합 광고의 성장을 견인해온 커머스 광고의 기저가 4Q24부터 높아졌기 때문. 커머스 광고는 4Q24 플러스스토어 베타테스트 시작, 1Q25 쇼핑 앱 출시, 2Q25 AdVoost 출시로 고성장 이어왔으나, 2026년부터는 누적된 기저 부담으로 매출 성장률 점진적 둔화 전망. 커머스 매출 1조 498억원(YoY 35.4%, QoQ 14.4%) 예상. 수수료 인상 효과에 따른 커머스 매출의 고성장은 1Q26까지 지속될 것으로 판단. 단, 수수료 인상이 2025년 6월부터 반영되기 시작한 점을 감안하면, 이후 커머스 매출 성장률 역시 점진적인 둔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 커머스 관련 인력 채용, 마케팅비 증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GPU 투자 확대 등에 따라 4Q25 영업비용 2조 6,789억원(YoY 14%, QoQ 4%) 추정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 영향으로 쿠팡 결제액 성장률은 기존 YoY 20%대에서 12월 한 달간 YoY 4%까지 크게 둔화(그림1). 주간 트래픽 역시 12월 중 WoW -95만명을 기록하며, 지난 1년간 가장 큰 감소 폭을 기록. 반면, 네이버 쇼핑 거래액은 12월 크게 반등한 것으로 파악되며, 플러스스토어 트래픽 또한 12월 첫 3주간 트래픽 회복세를 보임. 단, 해당 증가는 12/1~12/14 진행한 '강세일' 프로모션 기간과 겹친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으며, 실제로 프로모션 종료 이후 플러스스토어의 트래픽은 다시 소폭 감소하는 모습이 관찰되기도 함(그림3). 이에 따라 쿠팡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반사수혜와 프로모션 효과 일부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 반사 수혜가 네이버 쇼핑의 구조적 성장으로 이어질지 여부는 지속적 확인 필요 판단

2026년 본업 성장률 점진적 둔화 전망

전반적으로 2026년 광고, 커머스 본업의 성장이 점진적으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 이러한 가운데 두나무와의 결합은 단기적 실적 개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해당 효과는 이미 주가에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판단. 따라서 향후 주가의 추가 상승을 위해서는 광고, 커머스 외에 전사 매출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새로운 코어 비즈니스가 될 수 있는 파이낸셜의 신사업의 가시화 필요할 것으로 판단

(단위: 십억원, 원, %)

구분	4Q24	3Q25	4Q25(F)					1Q26		
			직전추정	당사추정	YoY	QoQ	Consensus	당사추정	YoY	QoQ
매출액	2,886	3,138	3,279	3,287	13.9	4.7	3,260	3,198	14.8	-2.7
영업이익	542	571	585	608	12.1	6.5	603	570	12.7	-6.3
순이익	554	626	420	437	-21.0	-30.1	538	403	-29.4	-7.8

자료: NAVER,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 Compliance Notice

- ✓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 Research Center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정확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위 애널리스트는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 ✓ 동 자료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